



## 추워서 더 설레는 '태백산 눈축제' 1월 18일 개막 태백산국립공원과 낙동강 발원지 황지연못 등에서 진행

국내 최고의 겨울 도시 강원도 태백시에서 열리는 '제26회 태백산 눈축제'가 1월 18일 개막한다.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올해 태백산 눈축제 기간을 2019년 1월 18일부터 2월 3일까지 17일간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눈축제는 태백산국립공원과 황지연못 등 시내 일원에서 다채로운 겨울프로그램으로 열린다.

1994년 처음 개최된 이래 올해로 26회째를 맞는 태백산 눈축제는 '눈, 사랑 그리고 환희'라는 주제로 관광객들을 맞이한다.

겨울 도시 태백은 눈의 도시로 연평균 적설량이 1m가 넘고 적설 기간도 5개월에 달한다.

태백 도심 속으로 하얀 겨울이 들어오는 것, 태백산 눈축제의 시작이다.

눈꽃산행, 대형 눈 조각 전시 등으로 이어지는 눈축제는 태백의 특별한 겨울을 만끽할 수 있게 해준다.

태백시 관계자는 "축제 일정이 일찍 확정된 만큼 관광객들의 오감을 만족시켜줄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확충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한번 찾으면 결코 잊을 수 없는 환상의 겨울 축제로 만들기 위해 축제위원 모두가 결의를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19일부터 2월 11일까지 24일간 열렸던 제25회 눈축제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방문객 100만명 시대를 연 바 있다. ❀

스물여섯번째!  
눈, 사랑,  
그리고... 환희

# 태백산 눈축제

The 26th Mt. Taebaek Snow Festival

2019. 1. 18 (FRI) - 2. 3 (SUN) [17일간]

태백산국립공원, 황지연못(문화광장), 태백역 등 시내일원



- 주최: 태백시
- 주관: 태백시축제위원회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 태백시, 태백시축제위원회
- 문의: 태백시청 관광문화과 [033-550-2085, 2081~3] / 관광안내소 [033-550-2828]